





Artist, Lee Suk-ju

소박한 자연과 마주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 화백

비움을 통해 수많은 ‘나’를 발견하다

〈Journal of Consumer Research〉에 따르면, ‘21세기의 신(新) 노블리안은 사회적 엘리트로서, 가족들과 지인들 대부분 상류층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지만, 부를 과시하지 않고 보수적인 편이다’라고 말한다. 〈Noble Asset〉은 2009년 신년호를 시작으로 이 시대 신 노블리안들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짚어가보고자 한다. 진정한 ‘노블’의 개념과 그 속에서 추구하는 정신적 풍요, 삶의 위트,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지혜와 같은, 숨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뜻 깊은 첫 만남은 국내 하이퍼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이석주 화백이다. 에디터 김소진 사진 최지영



“저는 노블리안이 아닙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남양주의 아틀리에에서 만난 이석주 화백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작년 마지막 달을 보름 남짓 남긴 토요일 오후, 북한강이 내다보이는 아틀리에에서 만난 이석주 화백은 되레 소박한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에디터의 선입견이 있을까.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섬세한 묘사와 사실성의 극단을 달리는 작품들. 당연히 그 손길의 주인공은 그만큼 빈틈없고 깊은 인품일 줄 알았다. 1980년대부터 30년 남짓 하이퍼 리얼리즘(극사실주의)을 이끌어온 한국화단의 대표화가는, 참으로 포근하고 따사로운 미소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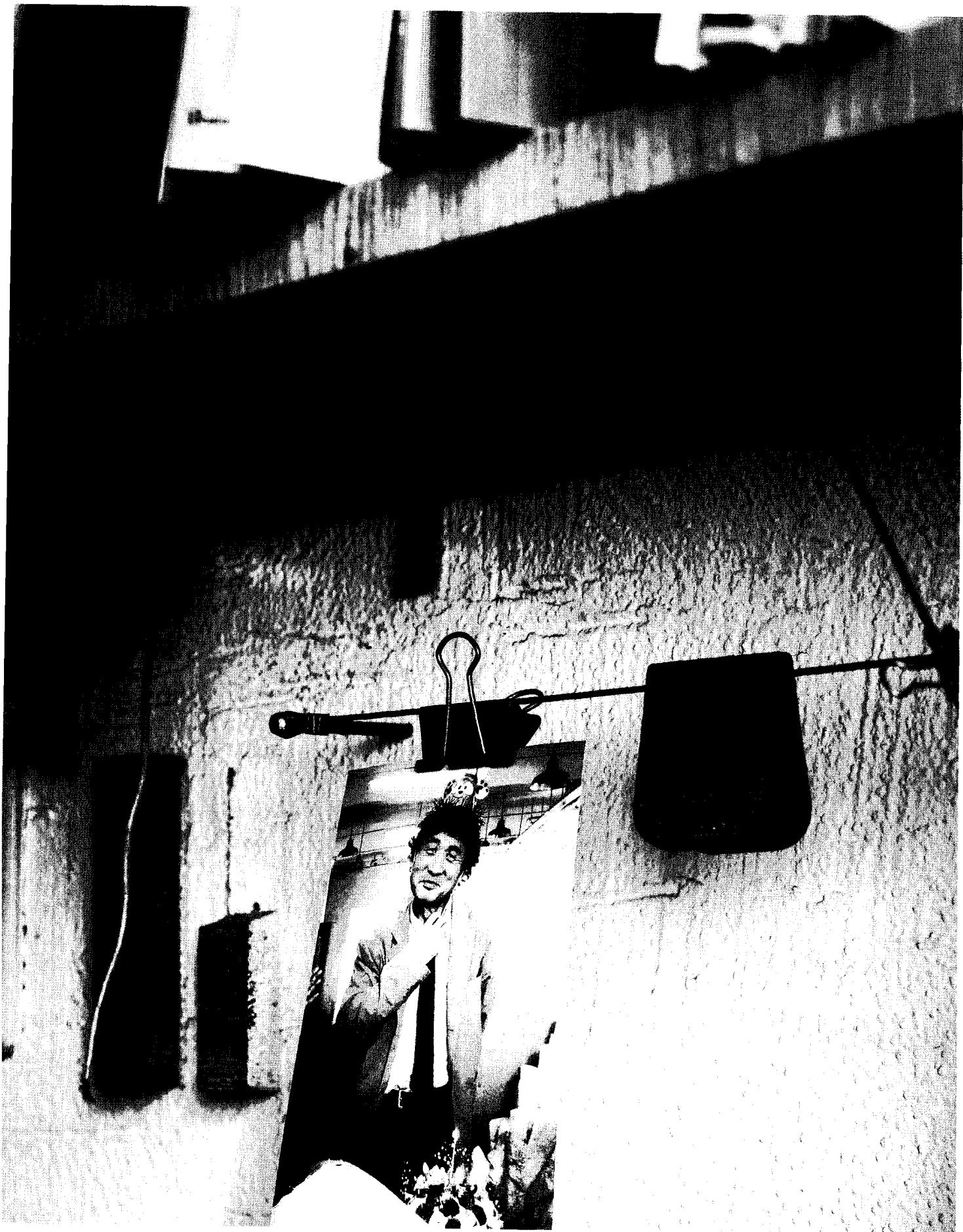
아틀리에의 전면 통유리창 밖으로 나무 3~4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고, 북한강과 화야산 능선이 병풍 속 화폭처럼 한눈에 펼쳐지고 있었다. 1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양주에 마련했다는 아틀리에 주변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풍수지리가 이석주 화백과 궁합이 잘 맞아 보였다. 그날 따라 유난히 심했던 아침 안개는 정오가 가까워 지면서 차츰 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논과 밭,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북한강의 자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신 노블리안은 이렇듯 집과 입지를 보는 안목부터 다른 모양이다. 숙명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수업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이곳 아틀리에서 지낸다. 자연의 품 속에서 예술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삶.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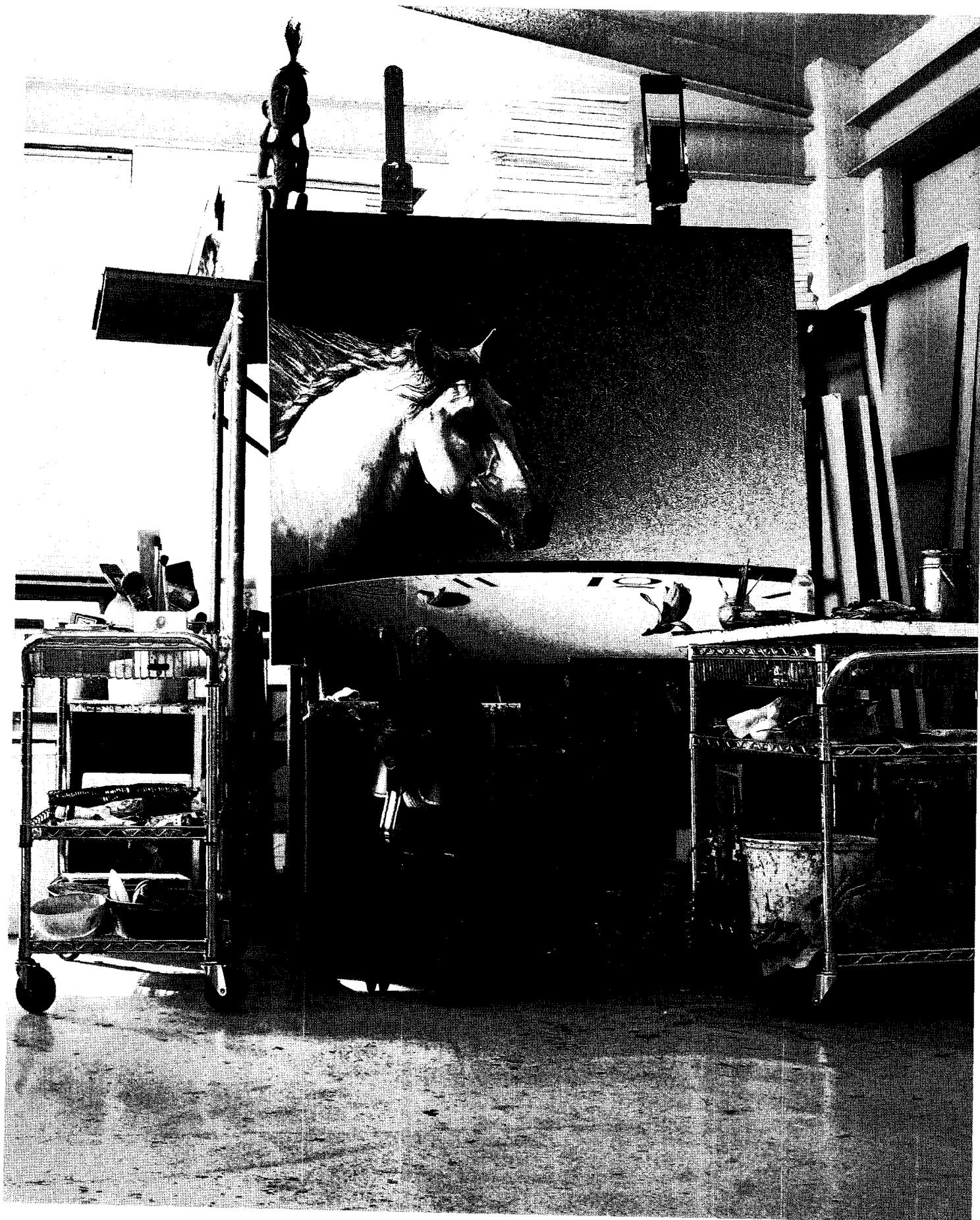
아버지 품 속에서 닮은 아들

이 화백은 홍익대 ·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줄곧 극사실주의 작품을 그려왔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20~30대 젊은 아들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죠. 무슨 이즘이나 무슨 주의 같은 관념에 사로잡힌 아웃사이더 같은 세상을 동경했어요. 한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거창한 관념보다는 작은 꽃 하나가 더 예쁘게 다가오더군요. 꽃 자체의 진솔한 아름다움에 눈뜨게 된 거죠. 사물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면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듯한 느낌이랄까.”

그의 지난 작품들은 어땠을까. 모가 나고 유통불통한 거친 단면들이 클로즈업된 듯한 70년대 작품 ‘벽’은 당시 이석주 화백의 ‘관념’ 세계를 짐작케 한다. 80년대 작품 ‘일상’ 시리즈에 등장하는 동네 전깃줄과 교통 표지판, 낡은 건물 등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지만, 웬지 모를 강력한 흡입력과 보는 이로





하여금 갖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90년대 '일상' 시리즈에는 시계·낙엽·기차 등의 오브제를 통해 인간의 실존 가치와 인생의 유한성을 대변했다고 이 화백은 말했다.

60~70년대 기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살아오면서 이 화백은 사회와 주변의 일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강하게 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연극 배우 겸 연출가였던 아버지가 하는 일과 작품, 성향들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철부지 아들이기도 했던 그. 한국연극연구소(현 드라마 센터) 극장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한 이석주 화백의 아버지(故 이해랑;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대한민국 연극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아버님이 연극을 하셔서 그리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죠. 어머님은 만년 소녀처럼 여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5남매는 모두 제각기 다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큰형과 둘째 형님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지만, 막내인 저는 그림이나 민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감성적인 아이였죠. 큰 형님이 저더러 남자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3형제 중에 이석주 화백이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중구 예장동의 드라마센터와 장충동의 국립극장을 다니면서, 연극을 지도·연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석주 화백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때 늘 말씀하시던 '리얼리즘'이 제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하시는 연극을 싫어했어요. 아버지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건 20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직접 연출하신 연극을 보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저 나름의 느낌들을 얘기하곤 했죠."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상당히 가정적이고 온화해서 허물없이 아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며느리에게도 무척 잘 해주는 따뜻한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경영인으로 성공한 두 형들도 권위적이거나 성격이 급하기보다는 꼼꼼하고 성실하면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다고. 그의 막내 형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과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을 지낸 이방주 회장, 둘째 형은 에이티넘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전 C&M 회장)이다.

영감을 주는 것은 내면 속의 무수히 많은 '나'

화가 이시라. 이제 몇년 후면 환갑이 되는 이석주 화백의 곁에는 그를 쑹 빼닮은 외동딸이 있다. 딸이지만 같은 길을 걷는 '동지'이기도 하다. 동양화를 전공한 딸은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에 익매이지 않고 더 할 나위 없이 밝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석주 화백의 부인은 "부녀가 판타지나 SF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닮았고, 함께 전시회나 음악회에 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빠랑 딸 모두 작품에 몰두하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오직 작업에만 몰두하죠. 일에는 집중력이 뛰어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편이에요. 그런 거 보면 딸이 아빠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한다. 가녀린 몸매와 조용한 말씨를 지닌 이 화백의 부인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셨던 여성스러운 어머님의 모습과 비슷한 듯싶다.

이석주 화백은 과거 사물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리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세계를 발견한 듯하다.

"자기 안에는 무수한 자기가 있어요. 햄릿이나 돈키호테,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 고민 중이에요."

30년 남짓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해온 이석주 화백은 경기도 남양주의 아틀리에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 세계 속의 무수한 오브제들을 발견해가고 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안내하면서 계속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종교와는 또 다른 자아를 만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작(大作)을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

